

지역작가들의 프랑스 ‘여행노트’

광주어반스케치 서동환 작가·나주미술협회 백은영 작가
10~16일 프랑스 ‘카르네 드 보아주’ 페스티벌 정식 초청
현지 작가들과 워크숍·공개 드로잉 세션·인터뷰 등 참여

프랑스 중부 도시 클레르몽페랑에서는 매년 국제 예술축제가 열린다. ‘카르네 드 보아주’는 세계 아티스트들이 여행을 매개로 만나 풍경과 문화, 인물을 스케치와 글로 표현하는 국제 예술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행노트’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에서 보듯 ‘카르네 드 보아주 페스티벌’은 현지에서 걷기와 여행 등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페스티벌(10~16일)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공식 초청돼 눈길을 끈다.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협회 회장 서동환 작가, 나주미술협회 회화분과위원장 백은영 작가가 주인공. 이들 두 작가는 국제 미쉐린 도시 네트워킹 및 페스티벌 주최 기관인 일 포 알레 부아르가 공식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내년이면 한불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가 강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제는 ‘물, 음식, 에너지’로 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다. 초청 작가들은 일주일간의 레지던시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와 남도의 문화를 세계

무대에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공식 초청을 받은 서 작가와 백 작가, 중간 연계과정에 힘을 보탰던 양수경 전 대광여고 교사(한국 프랑스어교사협회 이사 및 나주문화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서동환 작가는 “올해 25주년을 맞는 ‘카르네 드 보아주 페스티벌’에 한국인으로 최초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세계 30여국에서 130명 아티스트가 참여한 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일간은 자유롭게 도시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4일간은 아트페어처럼 각자 부스에서 완성한 그림을 선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를 기반으로 어반스케치 활동을 이끌어온 서 작가는 현지에서 광주의 문화와 민주, 인권, 평화로 대변되는 정신을 작품에 투영해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백 작가는 “한국화의 섬세함과 정서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나주라는 지역이 내재하고 있는 역사성, 서사성을 세계의 예술 언어로 확장하고 싶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백 작가는 충청도 공주가 고향이지만 경



‘제25회 카르네 드 보아주 페스티벌’에 백은영 작가(왼쪽)와 서동환 작가(오른쪽)가 초청됐다. 오른쪽은 나주시와 클레르몽페랑시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한 양수경 나주문화재단 이사.

기도에서 오래 거주하다 남편 직장을 따라 나주로 이주했다. “나주가 너무 좋아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각국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먹으로 현지 감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백 작가는 “물, 음식, 에너지라는 모티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티브”라며 “축제가 기간 느끼는 에너지를 표현할 생각을 하니 많이 설레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 작가들과 함께 어반스케치 워크숍을 비롯해 공개 드로잉 세션, 인터뷰 및 미디어 아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특히 광주와 나주의 정신과 미학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과 맞물려 나주시는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양국간 문화,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단에는 양수경 한국불어교사협회 이사, 엠마누엘 후 파리 시테대학 교수, 박선영 프랑스 한글학교협의회회장, 남영호 몽펠리에 한국문화축제 총감독 등이 포함돼 있다.

양수경 나주문화재단 이사는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의 비극도 표류 사건”이라며 “나주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한국과 프랑스의 첫 외교적 만남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클레르몽페랑 부시장 등이 나주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프랑스 페스티벌에 나주 작가 초청을 요청했다”며 “이번 국제 페스티벌은 그런 연장선에서 열리는 만큼 광주와 나주 등 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LERMONT DESSEINE!



서동환 작 ‘광천시민아파트’ (사진 위) 백은영 작 ‘5·18민주광장 구 도청’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시각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빌레라문화센터, 12월14일까지 기획전…김민재 등 4명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한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기존에 알지 못했던 이와 만남은 새로운 캐릭터와의 만남을 뜻한다.

작품 속 캐릭터를 매개로 삶의 다채로운 관점을 대변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인 세 번째 기획전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4명 작가가 화폭에 구현한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4일 개막해 오는 12월 14일까지 펼쳐지며 김민재, 문선미, 윤성민, 전현숙 작가가 출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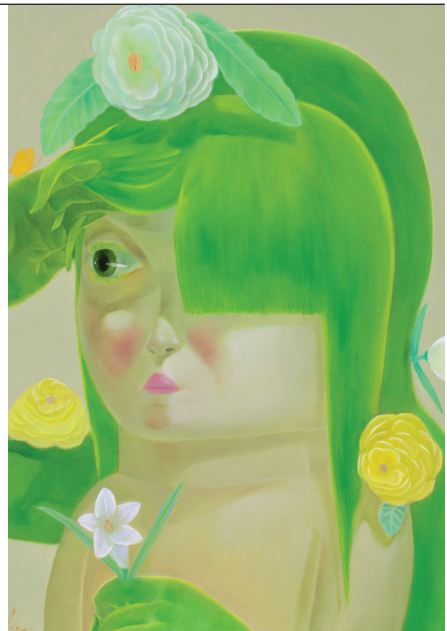
작가들이 각기 구현한 캐릭터들은 범상치 않다. 예술적 표현을 감안하더라도 일상에서 마주하기는 힘든 캐릭터들이다. 개성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창작의 과정을 매개로 형상화됐음을 전제한다.

문선미 작가의 ‘I see you’는 초록의 머리 카락에 길게 늘어뜨린 여성을 초점화했다. 왼쪽 눈을 머리카락이 덮은 모습은 보고 있

으되 반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아름다운 꽃을 머리에 꽂고 가슴에 달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우울하다. 어쩌면 여성이 보는 대상은 대상 너머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

김민재 작가의 ‘Blurring Figures’는 흔들리는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다. 빗물에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빗물에 반사돼 일렁이는 순간적인 얼굴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하다. 정형화할 수 없는 얼굴은 현대인들의 흔들리는 자아로 수렴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선미작 ‘I see you’



지난 공연 모습.

〈조선대음악과총동문회 제공〉

‘화합의 선율, 사랑의 하모니’

조선대 음악과 총동문회,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조선대 음악과가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음악의 전통을 무대 위에서 되새긴다.

조선대 음악과 총동문회는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화합의 선율, 사랑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2025년 동문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195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지역 음악교육의 맥을 지켜온 조선대 음악과가 교수, 동문, 재학생이 함께 꾸미는 무대다. 세대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성악과 기악, 합창이 어우러진다.

우선 여성합창으로 공연의 막을 연다. 김소월의 시에 윤학준이 곡을 붙인 ‘진달래꽃’, 신상우의 ‘가족이라는 이름’이 따뜻한 서정으로 무대를 물들인다. 이어서 두 대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바흐의 ‘샤콘느 D단조’ (H. 폴 맨 편곡)가 임제적인 울림으로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플루트 솔로에서는 오시마 미치루의 ‘바람이 머무는 날’,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섬세한 선율로 이어지고, 메조소프라노 강양은이 부르는 ‘이별가’,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 진한 감정을 전한다.

이밖에 남성 솔리스트 양상블이 선보이는 ‘대부’ OST ‘Parla piu piano’와 스프라그의 ‘우정의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공연의 대미는 혼성합창이 장식한다. 한돌의 ‘조율’과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조선대학교 교가로 무대의 막을 내린다.

무대에는 정요원·윤원준 지휘자를 비롯해 교수와 동문, 재학생 등 세대를 아우르는 연주자들이 함께 올라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시아, 서로의 기억을 다시 그리다

ACC 10주년 ‘Remapping ASIA’…13~15일 예술극장

전쟁의 기억, 고립의 불안, 그리고 공동체의 치유. 한국·대만·태국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아시아의 현재를 무대 위에 펼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김상욱)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15일 ACC 예술극장에서 아시아 공동제작 프로젝트 ‘Remapping ASIA’ (리매핑 아시아)를 선보인다.

대만의 대표적 국립극장인 국가양청원과 공동 제작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대만·태국의 연출가 3인이 참여한 국제 공동 창작 시리즈로, 각국의 사회적 현실과 문화적

정서를 예술 언어로 교차시키는 시도를 보여준다. 2년에 걸친 공동 워크숍과 리서치를 통해 완성된 이번 3부작은 전쟁, 고립, 샤머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축으로 삼는다. 각자의 역사와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들이 서로 다른 감정의 결을 통해 ‘아시아’라는 넓은 정체성을 새롭게 그려낸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대만의 원 스니 연출작 ‘나를 잊지 말아요’다. 전쟁을 ‘과거의 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오늘,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탐구하는 실험극이다. 대만·필리핀·한국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

개인의 기억과 식민의 역사, 전쟁의 잔상을 다시 엮는다.

이어지는 무대는 와인 차론 차마이의 ‘한 낮, 그리고 허공을 떠도는 연약한 것들: 그 다음, 점프! 점프!! 점프!!!’. 태국의 주목받은 젊은 극작가 겸 연출가인 그는 이번 작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달려야 하는 도시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감정과 관계의 운도를 되짚는다.

마지막 작품은 한국의 오세혁 연출가가 선보이는 ‘안티-샤먼 샤먼 클럽’이다. 게임



대만의 원 스니



태국 와인 차론 차마이



한국 오세혁

령과 샤머니즘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한 무대에 올려 역압과 해방, 의식과 놀이의 경계를 허문다. 굿판과 클럽이 어우러진 무대에서 샤먼의 주문이 EDM 리듬으로 변주되며, 관객은 놀이를 통한 치유와 연대의 순간을 함께 경험한다.

전석 2만원 (시리즈 패키지 50% 할인), ACC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